

News Letter



서울 강남구 학동로 170 베테라이프 빌딩 410호, Tel:02-3444-9090, 070-8692-9090, Fax:02-3444-5808
캐나다 웹사이트: www.uhacca.co.kr 미국 웹사이트 www.twus.co.kr 이메일: bgchae@naver.com

FROM TWOWAY

“현재 캐나다에서 열심히 생활하며 공부하는 투웨이 학생들에 관한 소식을 전하며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보다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뉴스레터를 준비하였습니다.”

투웨이유학원 채병갑원장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80달러가 제가 기억하는 가장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오래 전이고, 지금은 2만 달러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문으로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였지만 삶의 질도 그런가 생각해 봅니다. 당시 98%가 농업에 종사하며, 춘궁기에 헐벗고 끼니를 이어가기 쉽지 않은 때에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서울로 유학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원동력으로 지금은 노력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가 가졌던 동방 예의지국이란 자부심도, 찬란한 문화와 조상들의 업적, 한국인에 대한 무한한 긍지도 이젠 찾기 어려워 졌습니다.

경제적인 부가 삶의 질로 이어지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항상 처음 유학 오는 학생들에게 너희가 살아가야 하는 세대는 자가용 비행기가 교통의 대세가 된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원하면 우주 여행도 가능한 시대가 멀지 않았으니까요.

격차가 많이 벌어지긴 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아쉬움 없이 살 수 있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건강한 정신력과 반듯한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항상 아쉽고 불안하게 됩니다.

캐나다에 와서 한국과 가장 많이 다른 점이 삶의 질 문제와 행복의 척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시험보다는 평생을 살아가는데 아쉬움이 없는 준비를 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학년에서는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성적을 자랑하는 한국이 고학년이 되면 캐나다 같이 공부 적게 하는 나라 학생들에게 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나친 경쟁은 왕따와 같은 힘의 차별화를 부르고, 성적지상주의 사고로 학생들이 몸 둘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의 행복과 저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 저희 투웨이의 키워드이고 항상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캐나다, 미국 아이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와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고심하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힘과 바른 이성을 심어준 부모님의 영향일 것입니다.

투웨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겠지만, 하루도 쉼 없이 우리 자녀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키워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유학을 갔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찾아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미 기회를 놓친 경우도 많습니다.

유학원을 시작한지 이제 15년입니다. 초창기에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완벽이란 말을 사용하긴 어렵지만 현실로 존재 가능한 가장 좋은 유학원을 만들려 합니다. 이제 실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한국의 아이들에게

미래를 밝혀줄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유학은 생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제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귀 자녀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한번 더 투웨이를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면서, 2014년 새 봄호 투웨이 뉴스레터가 여러분의 입가에 작은 미소로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웨이 유학원 원장



목차

From 투웨이	1
투웨이 공지사항	2
2014 여름방학캠프 소개	2
투웨이 여름캠프 스케치	3
2013 여름캠프 활동	3
투웨이 겨울캠프 스케치	4
홈스테이 / 액티비티 활동	4
유학생할 에세이	5
유학생할 에세이	6
투웨이 미국 스포츠 설명	7
캐나다 지역 설명	7
투웨이 유학 설명회	8
투웨이 동정	8

TWOWAY 공지사항

1. 2014년 여름방학 캠프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웨이 유학원 홈페이지 www.twus.co.kr
또는 www.uhakca.co.kr를 참고하시고, 신청 및 상담은 전화
02-3444-9090 또는 070-8692-9090 으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2. 3월 29~30일 Coex에서 유학이민박람회를 개최합니다.

- * 장소 : Coex 3층 C,D 홀
- * 일시 : 3월 29일(토)~30일(일) 11:00~18:00
- * 내용 : 캐나다 졸업을 위한 준비과정 오리엔테이션
여름방학캠프 설명회

3. 7월~8월 투웨이 학생들을 위한 캐나다 정규과목 학점이수 On-line 수업을 진행합니다.

캐나다대학 진학 학생들을 위한 TOEFL 수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4. 캐나다/미국 대학진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투웨이 유학원은 조기유학을 발판으로 성장해 온
유학원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학 입학 및
졸업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학 진학에서 졸업까지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5. 여름방학 벤쿠버 YMCA참여 캠프를 운영합니다.

단순한 여행이나 영어학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
과 학부모님에게 추천하는 벤쿠버 현지캠프입니다.

- 캠프의 본고장에서 캠프를 경험 하고자 하는 학생
- 여름방학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은 학생
- 현지인과 교류를 원하는 적극적인 학생

6. 부모동반 설명회 개최

매월 2주, 4주 수요일에 투웨이 사무실에서 개최합니다.

- * 부모동반 지역추천
- * 부모동반 성공을 위한 준비
- * 현지 캐나다 교육제도 설명

2014 여름방학 미국/캐나다 캠프 소개

캐나다 글로벌 캐빈 캠프 (캐나다 교육청 캠프 + YMCA 캠프 2주)

- 일 정 : 7/11(1차:약7주), 7/25(2차:한달) ~ 8월 24일
- 금 액 : 1차 : 730만원 / 2차 : 480만원 (등록비:30만원)
- 참가 자격 : 초등학교 3학년부더
- 캠프 특징 : 캐나다 공립학교 선생님들에 의한 수업진행
캐나다 현지수업과 캠프를 동시에 경험
천혜의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캠프
- 추천 학생 : 액티비티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
캐나다 공립 교육을 체험하고 싶은 학생
현지학생들과 교류를 원하는 학생



캐나다 최대의 YMCA캠프 2주 프로그램

- 일 정 : 8월 9일~8월 24일
- 금 액 : 250만원(등록비:30만원)
- 특 징 : 벤쿠버 투어 2박3일, YMCA 2주캠프
캐빈생활(선생님과 같은 캐빈생활을 합니다.)
- 추 천 : 캐나다 친구와 사귀면서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
캐빈에서 생활을 해보고 싶은 학생

“미국 친구들과 함께하는 영어 Jump-up캠프”

- 일 정 : 7월 25일 ~8월 24일(한달)
- 금 액 : 520만원(등록비 30만원)
- 특 징 : 미국 사립학교 선생님들에 의한 6시간 수업진행
월 2회 프리젠테이션 발표회
투웨이 선생님 1시간 영어보충.
주 2회 미국 버디들과 함께 수업진행
벤쿠버 투어 1박 2일, 시애틀 투어 1박 2일
주 1회 스포칸 명소방문, 주말 액티비티 활동
- 추 천 : 영어공부와 캠프를 동시에 만끽하고 싶은 학생

TWOWAY 2013년 여름방학캠프에 참여한 학생들 스케치



2013년 캐나다 / 미국 여름방학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액티비티와 문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사진)

미국 캠프는 SSCS 사립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5명의 학생들이 참가를 하였으며, 마지막 금요일 공원에서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열어서 헤어짐을 아쉬워 했습니다. 여름은 투웨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각 홈스테이가 주말에 캠프등과 같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진행하여 다양한 미국 문화를 참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황지원 학생은 참가기간 내내 캠핑활동을 즐기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너무도 즐거웠고 행복했다" 라는 말을 했으며, 같이 참가한 황미나 학생은 이번 겨울 방학캠프에도 참가하여 미국 캠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미국은 '시애틀투어' '엘로우스톤 국립공원' '벤쿠버투어'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북미경험을 체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버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같은 또래의 학생들과의 교류를 중시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캠프는 YMCA 캠프참여와 공립교육청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기존의 영어캠프는 한국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캐나다 벤쿠버 YMCA 캠프에 참가하여 현지인들의 캠프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김슨에 있는 캠핑장은 태평양을 접하고 있어서 해양 스포츠 액티비티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과도 쉽게 친해 질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한가지의 자랑인 공립교육청과 함께하는 영어 캠프에서는 다양한 캐나다 교육의 현장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캐나다 현지 공립교육청 선생님께서 구성된 교사진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캐나다 교육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과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오후에 구성된 필드 트립에서는 현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이라이트는 1주일간 진행되는 혼비아일랜드 캠프장 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훌륭하게 마친 학생들은 교육청 자격증을 교부 받아 좋은 경험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TWO WAY 2014년 겨울 스쿨링캠프에 참여한 학생들 스케치

- 겨울 스쿨링은 학생들의 겨울방학 기간에 캐나다/미국 현지 공립/사립 학교에 참여를 하여 현지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현지인들과 함께 배우고 익히는 프로그램이라서 참여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부쩍 향상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투워이의 대표적인 겨울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 겨울 스쿨링캠프에는 3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외국에 처음 가는 학생부터 벌써 2번째 저희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까지 다양한 사연의 학생들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이번 캠프 학생들은 자신들의 공립학교에 참가하여 현지 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을 알아듣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던 학생들이 돌아올 즈음에는 학교 숙제가 무엇인지, 내일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이 어떤 것인지 알아들을 정도로 영어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학생들의 저력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3~6학년의 어린 학생들은 빠른 적응력을 보여서 2달간 생활에서 영어가 많이 향상되어 돌아왔습니다.



학교 생활 : 8시30분에 시작하여 2시40분까지 진행되는 공립학교수업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첫날에는 주위에 모든 학생들이 캐나다 학생들 뿐 이어서 당황도 많이 하였지만, 며칠 지난 후부터는 현지 친구들을 사귀면서 점차 학교수업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2달을 마치고 학교 친구들과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아이들은 다음 캠프에 다시 올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홈스테이 생활 : 한국문화와 다른 서구 문화에 적응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짧지만 가족구성원으로서 한국과 다른 캐나다 가족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학생들의 홈스테이 소개

학생들의 액티비티 활동



민지학생 홈스테이 가족(사진 좌)

3명의 어린 동생들과 3달 동안 즐겁게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는 교회/수영장/스케이트장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가족과 공유하였습니다.

경서학생 홈스테이 가족(사진 우)

5학년 경서학생은 2명의 언니가 있는 홈스테이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언니들과 학교 방과후에 요리도 하고 산책도 같이하면서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소현학생 홈스테이 가족(사진 좌)

4학년 소현이는 처음 일주일간은 시차로 고생을 하였지만 마지막 날에는 한달 더 있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적응을 잘했습니다.



민형이와 승우가 농구클럽에 가입하여 미국 학생들과 연습경기를 마치고 멋진 포즈로 한 컷 !!



온천에 놀러 가서 학교 친구들과 포즈를 잡았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학생이 주인공이 되었답니다. 캐나다 친구들과 생일을 즐기고 있는 지용/지훈 형제

2014 TWO WAY 학생들이 전하는 유학생 생활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4년째 캐나다에서 유학생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은 캐나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지원서를 낸 상태입니다.

캐나다에 처음 온지가 어제 같은데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에 부모님께서 캐나다 유학을 권하셨고, 들뜬 마음으로 캐나다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중학교에서 배운 영어는 캐나다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영어와는 차원이 달랐고, 말을 할 때마다 혹시 내가 틀린 문법을 쓰지 않았을까, 혹시 나를 비웃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에 현지인들과 대화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10학년으로 캐나다에 다시 돌아가는 해에 비행기 안에서 친구들도 만들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자 혼자 다짐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먹은 뒤로 캐나다 현지인들에게 안되더라도 바디랭귀지를 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영어 소통 능력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말을 하면서 느는 것이라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더 잘해보자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다니 서서히 영어가 귀에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저에게 제일 힘든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제일 친한 친구들도 있고, 친구 중 한 명과 여름에 같이 한국으로 돌아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 얻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같은 수업을 수강하는 친구에게 계속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수업시간에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거나 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영어소통을 잘 하게 되는 다른 방법은 스포츠나 클럽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관심 있었던 농구, 축구, 달리기를 했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영어도 훨씬 빨리 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한 두 시간 숙제와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수업 중에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하거나 수업이 끝난 후에 선생님에게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언어로 공부 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친구들과 놀거나 스포츠를 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부를 즐긴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캐나다 시골 쪽에서 생활했고 작은 마을이라 활동의 범위가 많이 넓지 않았지만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며 생활해 왔습니다. 가끔 학생들 중에서 단순히 홈스테이에 돈을 주고 같이 산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홈스테이는 저희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잘 대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의 홈스테이에서 2년 동안 함께 살아서 지금은 한 가족과 같은 기분으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어로 말하기가 무서워 방안에 있는 것 보다 거실에 나와 오늘 하루에 대하여 이야기 하거나 가족들의 여가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영어를 쓰는 습관에

도 도움이 되고 가족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하거나 물을 너무 많이 쓰는 행동은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홈스테이와 가깝게 지내고 싶다면 저녁을 먹고 그릇 치우는 것을 도와주거나 가끔 한국음식을 만들어 같이 나누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베이킹을 좋아하기 때문에 쿠키나 케이크를 자주 굽다 보니 어느새 홈스테이 집의 제빵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지금까지 유학생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를 믿어주는 부모님과 투웨이 유학원의 도움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했으면 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하면서 공부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겠지만, 이곳에서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를 알게 되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4 TWOWAY 학생들이 전하는 유학생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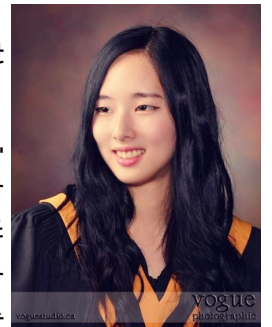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조소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6개월째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오기 전 날만 해도 제가 부모님을 떠나 유학생활동을 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하고 홈스테이집에 가기 위해 차를 탔을 때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1년간 머무를 집이라고 생각하니 흥분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홈스테이 가족들이 나와서 반겨주시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홈스테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홈스테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즐겨서가 아닐까 합니다, 캐나다에선 인사예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good morning!" 학교 갈 때 "Have a good day!", 학교 다녀와

서 "How was your day?" 잠자리에 들 때 "good night"과 같이 기본적인 인사말은 잊지 않고 하였더니 어느새 홈스테이 가족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캐나다에 올 때 홈스테이 걱정을 하였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올 A를 맞을까 고민 중입니다, ^^;

캐나다에서 엄마와 아빠가 없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현지 엄마 아빠가 저와 잘 지내고 있어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지금처럼 행복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웨이 선생님들께도 감사인사를 전하며, 엄마 아빠 사랑해요!!

처음 유학을 결정하게 된 게 중3 겨울방학이었어요, 그때 정말 방향도 많이 했었죠, 고등학교 가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이대로 한국학교에서 미래를 정해도 될까? 이대로 대학도 못 가고 좌절하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절 힘들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캐나다 유학이 절 구해줬어요 거의 도피식으로 캐나다에 온 것 같아요, 아직도 캐나다로 오는 비행기에서 첫 6개월 동안 잘 할 수 있을꺼란 철었던 생각이 기억나요, 사실 그 첫 6개월 동안 고생이란 고생 모두 한 것 같아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문화 등등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단 훨씬 더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전 제 인생의 벼랑,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라 몰려 설수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 이 모든걸 한번에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던 거 같아요, 그 이후, 캐나다 친구들을 사귀고, 홈스테이와의 관계향상, 학교 선생님들의 관심과 도움들이 결합되니 학교 성적도 잘나오고 또 제가 커서 뭘 하고 싶은지 찾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 저는 어려서부터 해오던 미술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현재는 밴쿠버에서 미술학과로 유명한 emily carr University를 지원하였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학 원서를 넣기까지 과정을 되돌아보면 너무 힘들고 외롭고 긴 여정이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꼭 넘어야 하는 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고등학생에 비하면 캐나다 학교는 정말 자유로운 학교였다는 걸 새삼 느끼고 캐나다로 유학 온 걸 감사히 생각했어요, 사실 이 모든 선택을 봐주시고 지지해주신분은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딸을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에게 보내고, 딸이 영상통화에서 올 때마다 아무것도 못해주고 오직 위로만 해주시고 저에게 다른 기회를 주실려고 힘들게 일하셔서 번 돈을 써 주신 것도 너무 고맙고 또 죄송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딸의 선택을 우선시하고 제가 원하는 길을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주시는, 항상 필요할 때마다 계셔주는 부모님이 있어 유학이 성공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 생각해요, 돌이켜 보면 후회도 많이 해요, 슬럼프도 많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고 외롭고... 그래서인지 졸업하는 저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추억으로 남아요, 힘든 고비도 오지만, 힘든걸 견뎌내니 더 많은 것들이 오더라고요, 가끔씩 옛날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성숙해졌는지 알게 되고, 목표를 점점 높여가며 결국 달성하는 저를 보게 된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더 높은 곳을 원하신다면 한 번 도전해 보는 것을 권유해드려요, 마지막으로 투웨이 선생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2014 TWOWAY 가 추천하는 캐나다/미국 지역

미국 스포캔(Spokane) 지역소개

스포캔은 미국 북서부 워싱턴 주에 위치한 도시이며, 인구는 약 50만 명입니다. 미국 전체 도시 중 100위안에 드는 제법 큰 도시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며 여름평균 26C 정도로 사람이 거주하기에 매우 쾌적한 기후입니다. 주민들은 19세기에 정착한 유럽계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워싱턴 주의 교육과 산업의 중심 도시로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위치해 있으며, 첨단기술과 바이오텍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홈스테이들이 학교 학부모님들과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또래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캐나다 Nelson 지역소개

쿠트니 레이크 지역은 밴쿠버로부터 차로 7시간, 비행기로 1시간 정도 동쪽으로 떨어진 중소도시로 넬슨시와 크레스톤시 외 주변 작은 도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구는 5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간 기온은 최저 -5도에서 최고 25도로 캐나다 내에서 가장 좋은 기후와 도시 전원적 분위기를 가진 지역입니다.



BC주 정부 사무소와 의료연구 단지 등의 지식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학부모들의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게임방, 노래방 등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이 전혀 없는 청정 지역으로 캐나다 문화와 생활양식에 쉽게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상의 지역입니다. BC주 공립학교 전체 순위 Top 5 안에 들어가는 LV Rogers 고등학교가 있으며, 매년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캐나다와 미국 명문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Comox Vally 지역 소개



코목스 밸리는 빅토리아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밴쿠버 섬 동부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코목스 밸리는 코트니 컴벌랜드 그리고 코목스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코목스 밸리에서는 매 3개월마다 평균 130개의 레크네이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예술 및 스포츠 문화적 이벤트를 포함하여 연간 40여개의 특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간기후는 1월에는 최저기온이 영상 0~7도이며 최고 기온은 5~10도이며 8월은 최고기온이 25도를 넘지 않는 건조하

면서 온화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지역적 특성으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해당되나 건조한 날씨로 습한 느낌은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비가 오지 않는 날씨에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를 연상할 정도의 계절입니다.



TWO WAY 유학 설명회안내

투웨이 유학원은 2주, 4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논현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조기유학, 동반유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소: 투웨이 유학원 논현동 본사 세미나실
- 일시: 2주, 4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 문의: 02-3444-9090, 070-8692-9090

bgchae@naver.com

www.uhakca.co.kr / www.twus.co.kr

미국 관리형 조기유학 설명회 안내

● 설명회 일정

2014년 4월 18일(금) 오전 11시 / 오후 2시

4월 19일(토) 오전 11시

- 설명회 장소: 투웨이 유학원 서울 논현동 본사
- 참가문의 및 신청: 02-3444-9090,
070-8692-9090

*일정은 추후 변경가능하오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TWO WAY 유학원 동정

3월(March)

3/29 ~ 30 코엑스 유학 이민 박람회 참가방문

4월(April)

4/18~19 투웨이 캐나다 미국 캠프 / 조기유학 설명회 개최
장소: 투웨이 사무실

5월(May)

5/16~17 투웨이 캐나다 미국 캠프 / 조기유학 설명회
장소: 투웨이 사무실

6월(June)

6/2 미국 투웨이 장기학생 귀국
6/12~15 창원 영어체험 교육박람회 참가

6/25 캐나다 투웨이 장기학생 귀국

7월(July)

7/5 여름방학캠프 1차 출국 오리엔테이션
7/11 캐나다/미국 여름방학캠프 1차 출국
7/12 여름방학캠프 2차 출국 오리엔테이션
7/25 캐나다/미국 여름방학캠프 2차 출국

8월(August)

8/25 미국 조기유학, 단기스쿨링 학생들 출국
8/24 여름방학캠프 참가자 귀국
8/27 미국 학기 시작

9월(September)

9/1 근로자의 날
9/1 캐나다 9월학기 조기유학, 단기스쿨링 학생들 출국

**No Korean
Real English**

투웨이는
한국인 없는
'영어 청정지역'을
추구합니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캐나다 & 미국 조기유학





단기스쿨링, 관리형조기유학, 부모동반유학, 방학캠프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8-7 베타라이프빌딩 410호
상담전화: 02-3444-9090, 070-8692-9090